

대학의 학점취득 창업교육이 수강생 심리적 특성변화에 미치는 영향

박상호*

연세대학교 창업대학원 석사과정

전기석**

연세대학교 창업대학원 교수

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대학마다 창업교과목을 앞 다투어 개설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분석 및 대안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창업교육, 특히 대학의 학점취득과 관련한 교육이 수강생들의 심리적 특성변화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대학 창업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서론

기술의 진보 및 의료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점차 늘어나고, 또한 불확실한 경제환경의 전개로 인해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들만의 일을 찾고, 만들기 위해서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창업의 관심에 비례하여 창업교육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시점에 있다. 창업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창업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창업교육이 창업자들의 심리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창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짧게는 3~4일의 기본교육에서 길게는 1~3개월 내외의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위한 단기 창업교육에 집중하여 왔다. 또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창업관련 협회 등에서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그리고 대학 등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위해서 1990년대 말부터 숭실대학교, 호서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창업관련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창업교육이 만들어지고,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창업교육이 창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쯤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학의 학점 취득과정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수강자의 심리적 특성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학점취득과정 창업교육이 교육수강생의 심리적 특성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수강생의 심리적 특성이 창업교육을 받기 전과 이수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통제위치, 위험감수 성향, 성취욕구, 모호성의 수용과 더불어 창의성 항목이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이들 심리적인 특성의 변화에 창업교육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및 분석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으로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Begley & Boyd1985; Borland, 1974; Boyd, 1984; Hornaday & Aboud, 1971; Liles, 1974; Sexton & Bowman, 1978; Timmons, 1978; Welsh & White1981)에서 통제위치(Locus of Control), 위험감수성향(Risk-Taking Propensity),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 그리고 모호성의 수용(Tolerance of Ambiguity) 등은 규칙적으로 등장하는 속성들이다.

* ibeg@naver.com

** jks5473@yonsei.ac.kr

1) 통제의 위치

통제의 위치(Locus of Control)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사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거나 자신과 관련이 없어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통제위치가 내적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신뢰하며 운명, 행운 또는 영향력 있는 타인 같은 외적인 힘에 의존하지 않는다. 반면, 외적인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결과의 최우선적인 영향요소라는 신조를 거부한다(Seligman, 1975).

자신의 행동 결과가 내적으로 통제되는지 아니면 외적으로 통제되는지에 관한 믿음(Belief)을 나타내는 통제위치는 창업과 관련된 개인특성 중 가장 널리 연구된 것 중 하나이다(Brockhaus, 1982). 내적 통제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 기술, 노력 등을 통해 자신의 행동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외적 통제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 스스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Rotter, 1966).

2) 위험감수 성향

일반적으로 창업자들은 위험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한데, 그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작정 위험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 하에 위험을 택한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계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성공적인 창업가의 여부가 결정된다(정성영, 2011).

3) 성취욕구

성취욕구는 창업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동기요소 일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제발전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문제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려 하고 목표를 제시하며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다. Steers(1975)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에 대한 만족도 및 성과와 성취욕구간의 연구에서 성취욕구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더 만족하였으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더 많은 성취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 모호성의 수용

모호성의 수용(Tolerance of Ambiguity)이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의 정도를 말한다. 개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했을 때 모호성을 지각하고, 새롭거나 복잡하거나 해결이 어려울 때 모호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모호성감수에 대한 인내는 애매한 상황을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반

면, 모호성 감수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그러한 상황을 위협으로 받아들인다(Bunder, 1962).

5) 창의성의 욕구

창의성에 대한 시각의 차이 때문에 창의성의 정의도 다양하다. 창의성에 대해서 Guilford(1967)는 창의성을 “인간의 지적, 정의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지적 요인은 지능 검사로 측정되기 어려우나 지능의 한 중요한 측면이면서 인간의 보편적인 잠재력이고, 정의적인 요인은 창의적 행동을 발휘하게 하는 개인의 인성적, 기질적 특성이며, 학교 교육에서 훈련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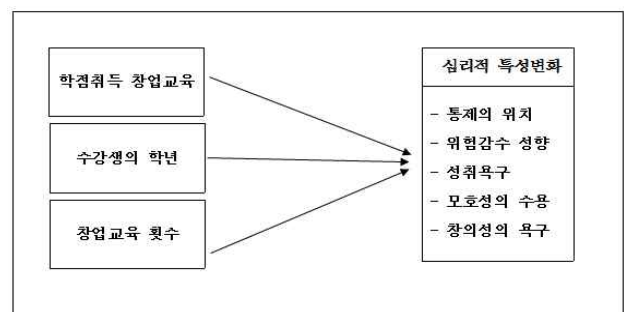
Torrance(1996)는 “몇 가지 기술, 능력, 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에 작용하는 것”을 창의성으로 보고, Sternberg(1994)도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새롭고, 문제 상황에 적절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을 위한 연구설계를 하였다. 교육수강생의 심리적인 특성이 창업교육(대학의 학점취득 창업교육)을 받음으로써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또 그 변화에 개인의 특징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심리적 특성의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조사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의 학점취득 창업과정 교육에 참가한 예비창업자들에게 교육 전과 교육 후에 연구 설문을 실시하여, 교육의 전과 후 나타날 심리적 특성인 통제의 위치, 위험 감수성향, 성취욕구, 모호성의 수용, 창의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때, 학년, 창업교육 수강횟수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또 어떤 변화의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가설 1: 학점취득 창업교육을 통해서 심리적 특성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창업교육을 받는 수강생의 학년에 따라서 개인 특성의 변화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창업교육을 받는 수강생의 창업교육을 받은 횟수에 따라서 개인 특성 변화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4. 선행 연구 조사

창업교육과 심리적특성간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종하(2009)는 청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을 독립변수로서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하였다. 그는 청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은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으며 연구 결과 각 특성들은 사업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중회귀 결과는 성취욕구만이 사업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됐다.

이승재(2009)는 일반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 창업교육인 성공 창업 패키지교육이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예비창업자의 연령, 학력, 교육 횟수에 따라 심리적 특성에 변화가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연구 결과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변화의 정도가 유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연령, 학력, 교육 횟수 또한 기각되었다.

5. 연구진행 계획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와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학점취득 창업교육 수강생의 심리적 특성인 통제의 위치, 위험감수성향, 성취욕구, 모호성의 수용과 더불어 창의성의 개념을 논의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학점취득 창업교육 이수전과 이수후의 수강생 심리적 특성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헌적 연구방법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하여 선행연구와 자료 등을 토대로 그 개념을 정리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변수들간의 관계를 통해 연구의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적 연구방법에서는 문헌적 연구를 바탕으로 수강생의 심리적 특성과 함께 인구통계학적인 문항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자료의 수집 방법은 LINC사업단을 보유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및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받은 강원대학교 등 창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학점취득 과정 창업강좌를 이수하기 전과 이수한 후의 심리적 특성변화를 측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일 수강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수강 전과 수강 후에 각각 설문지 300부를 배포 후 직접 작성하게 하여 수집할 예정이다.

설문지의 방식은 자기보고식(Self-Reporting)으로 구성할 것이며 설문지는 6개 부분으로 구성 할 예정이다. 통제의 위치에 관한 7문항, 위험감수 성향에 관한 6문항, 성취 욕구에 관한 7문항, 모호성의 수용에 관한 5문항, 창의력에 관한 6문항, 그리고 수강생의 인적사항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안승권, 2008, “대학 창업교육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승재, 2009, “창업교육이 예비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변화에 미치는 영향-성공 창업 패키지 교육 참가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이재천, 2010,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오해영, 2014,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이 창업유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오현준, 2015, “창업교육 만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